

한국판 부모자녀관계 척도(Korean-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K-PRQ-P)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이 경 숙[†]

박 진 아

이 미 리

신 유 립

한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판 부모자녀관계 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K-PRQ-P)의 표준화 연구로, 미국판 PRQ-P를 토대로 표준화에 사용할 한국판 K-PRQ-P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3단계에 걸쳐 PRQ-P 도구를 번안한 뒤, 서울, 경기, 전주, 청주 및 부산의 5개 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2-5세 유아의 어머니 388명(남아 53.2%, 여아 46.8%)을 대상으로 K-PRQ-P 도구를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N=20)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집단(N=75)과 K-PRQ-P 점수의 차이검증, 각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 그리고 K-PRQ-P와 K-PSI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미국판 PRQ-P의 요인구조와 K-PRQ-P 도구의 요인구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K-PRQ-P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구의 유용성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판 부모자녀관계척도(K-PRQ-P), 유아, 신뢰도, 타당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Tel : 031-370-6500, E-mail : debkslee@hanshin.ac.kr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해가지만, 출생 직후 맺는 일차적 관계인 가족들과의 상호관계, 그 중에서도 부모와 맺는 부모자녀관계는 이후 자녀의 전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언어발달(Magill-Evans & Harrison, 2001), 학업성취(Mantzicopoulos, 2003; Rosenzweig, 2000), 학업준비도(Conner, 2001)를 포함한 인지발달, 자아존중감(Culp, Schadle, Robinson, & Culp, 2000), 사회적 유능감(Harris, 2002), 외로움(Antognoli-Toland, 2001)을 비롯한 사회정서발달,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문제와 부적응을 비롯한 정신병리(박영신, 김이철, 2000; 최인재, 2005; Kendall, MacDonal, & Treadwell, 1995), 자녀가 이후 성장하여 맺게 되는 부부관계와 본인의 자녀와 맺는 또 다른 부모자녀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전생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전생애발달 주기 중에서도 특히 발달연령상 부모에게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영유아기에는 부모자녀관계가 이들의 이후 전반적인 발달과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영유아의 정신과적 진단 편람인 DC 0-3(신의진, 이경숙, 이재명, 2003)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모자녀관계 장애를 영유아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신병리 중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임상분야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영유아의 발달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동시에 추후 정신병리의 완화와 사회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에 적극 활용되는 보호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 영유아 교육관련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부모자녀관계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중심주의적일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 즉 일심동체로 여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최인재, 2005)를 고려해볼 때,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문화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의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도구가 소수에 불과하며(Kamphaus & Reynolds, 2006), 더 나아가 부모자녀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연구마다 나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구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본 연구진은 국내외의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에서 실제 어떠한 측정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국내학술지 논문검색 웹사이트인 KISS와 KERIS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모-자 관계, 부모자녀관계 문제, 부모자녀 관련성 등을 검색 용어로 하여 2009년 2월까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검색한 결과 총 82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외국 학술지 검색을 위하여 해외논문 검색 웹사이트인 EBSCO를 통해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를 검색 용어로 하여 2009년 2월까지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총 1327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국내외 두 검색결과를 토대

로 각 논문들에서 사용된 부모자녀관계 측정 도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측정도구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초기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오경자, 문경주, 2006; Abidin, 1995). 대표적으로 사용된 도구로는 Abidin(1995)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부모와 자녀 각 영역별로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정경미, 이경숙과 박진아(2008)가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PSI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PSI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모자녀 관계에서 양육과 관련되어 드러나는 부모의 구체적 행동차원은 간과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주로 부모자녀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담 및 임상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애착이론에 근거를 두고 반구조화된 질문면접 형식으로 구성된 면접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Ainsworth, Blear와 Waters(1978)의 낯선상황실험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 2003), Zeanah, Benoit와 Barton(1986)의 내적작동모델인터뷰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George, Kaplan과 Main(1996)의 성인애착인터뷰Adult Attachment Interview(Schmidt, Cuttress, Lang, Lewandowski, & Rawana, 2007), 부모에 대한 표상수준을 사용한 측정도구(김영아, 2000; 나유미, 2001; 이경숙, 정석진, 박

진아, 신의진, 2004;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Harach, & Kuczynski, 2005)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DC0-3R에서는 부모와 영유아의 관계의 질에 대해 전반적인 기능, 심리적 고통, 적응의 유연성, 갈등 및 해결수준 등을 고려한 부모-영유아 관계의 전반적 평가척도(PIR-GAS)와 관계문제점검표(RPCL)가 제시되었다(ZERO TO THREE, 2005).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부모자녀 간 병리적 관계를 심도있게 탐색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접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실시와 해석과 관련된 시간·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부모가 보고하는 지필식 검사이면서 간단하게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임상기준점(T점수)이 제시되어 있는 검사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크게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문혁준, 2008; 박영신, 김이철, 2000; 신건호, 2004; 홍성훈, 도현심, 2002; Brennan, Broque, & Hammen, 2003; Lifford, Harold, & Thapar, 2008; Zhang, 2007). 이러한 선행연구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 훈육방법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응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주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질적분석에서도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가 사용되었다(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관계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즉 부모와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형성하는 애착과 정서적 관계 및 심리적 유대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도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Kamphaus와 Reynolds(2006)의 부모양육·관계척도(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PRQ-P) 2-5세용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PRQ는 2-5세 유아용과 6-18세 아동 및 청소년용의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PRQ-P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도구는 자녀와의 근접성과 공감 및 자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지와 관련된 아동과 부모의 정서적·인지적·행동적 관계인 애착(Attachment), 부모가 가정의 규칙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신념 수준과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일관된 반응과 처벌 수준인 훈육(Discipline Practice),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함께 하는 지에 대한 관여(Involvement),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경험하는 편안함과 자신감인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으로 좌절감과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수준인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의 5개 하위영역,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관계 측정 측면에서 본 도구의 장점은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이상에서 제시된 총 5개 하위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임상 및 연구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구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구인과는 별개로 연구방법 측면에서 각각 애착, 양육방식 및 양육스트레스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술 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 토대로 아동과 부모관련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증진과 개입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Kamphaus와 Reynolds(2006)의 PRQ-P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론적 구인을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영유아와 부모 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 하위영역별로 임상적 기준점이 T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도구를 활용하면 국내 유아와 부모 간 애착, 훈육, 관여, 양육효능감, 관계적 좌절감의 각 영역별로 부모자녀관계가 어떠한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로 인해 자녀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와 유아에게 어느 영역에서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지를 보다 정확히 제시하여 상담사와 치료사에게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도구는 다양한 상담 및 임상장면의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도구의 개발자인 Kamphaus와 Reynolds(2006)는 교육기관, 임상현장, 가족상담기관 등 다양한 상담현장

에서 상담사 및 치료사들이 부모와 자녀간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 아동의 정서 및 행동적응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 문항,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구체적 질문들을 통합하여 본 도구의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도구는 교육현장에서는 부모교육,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는 부모상담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목표설정,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앞으로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모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본 도구는 외국의 아동 및 가족상담 분야에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임상 및 정신과에서 부모자녀관계 장애 진단과 평가, 학교현장에서 부모심리교육평가, 더 나아가 법정심리학과 법정에서 자녀양육권 분쟁에 사용될 부모자녀관계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Kamphaus & Reynolds, 2006).

마지막으로, 본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부모 보고식 도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편파적 보고를 지양하기 위하여 F index와 D index의 두 가지 지표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F index의 경우 부모가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정하였는지를 측정하며, D index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부모의 방어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F index와 D index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석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amphaus & Reynolds, 2006). 이러한 두 가지 지표는 유아와 부모의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도 높게 측정하여 상담 및 임

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와 부모관련 임상 및 연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구분되는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개발된 Kamphaus와 Reynolds(2006)의 PRQ-P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추후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전주, 청주 및 부산의 전국 5개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2세부터 5세까지 유아 388명(남아 53.2%, 여아 46.8%)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평균 연령은 4.15세($SD = 1.95$)이며,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대부분이 대졸 이상, 부모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수준도 중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인구학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 분포 (N=388)

연령	성별		총
	남아	여아	
2세	16(66.7%)	8(33.3%)	24(7.7%)
3세	16(40.0%)	24(60.0%)	40(12.9%)
4세	45(54.2%)	38(45.8%)	83(26.8%)
5세	84(51.5%)	79(48.5%)	163(52.6%)
총	161(51.9%)	149(48.1%)	310(100%)

주. 성별과 연령에 대한 결측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표 2.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N=388)

	빈도	%		빈도	%		빈도	%
부 교육수준			모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지위		
대졸	249	64.2	대졸	183	47.2	상	1	0.3
고졸	130	33.5	고졸	144	37.1	중류 중 상	22	5.7
중졸이하	4	1.1	중졸이하	4	1.1	중류 중 중	202	52.1
						중류 중 하	123	31.7
						하	28	7.2

주. 결측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적 배경은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t; PRQ-P)

Kamphaus와 Reynolds(2006)가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RQ는 애착(Attachment, 11문항), 훈육(Discipline Practice, 9문항), 관여(Involvement, 8문항),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7문항),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문항)의 5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전혀 없다’ 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3점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는 F index와 D index의 두 가지 타당도 지표가 있는데, F index의 경우 부모가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정하였는지를 측정하는데, 당 11문항에 부모가 0점을 평정한 개수를 세어 3개 이상이면 해석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D index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와 관련된

부모의 방어성을 측정하는데, 5개 하위영역 중 각 하위영역 별 점수가 극대치로 산출된 하위영역 개수를 세어 3개 이상이면 해석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Kamphaus & Reynolds2006)

한국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K-PSI)

K-PRQ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Abidin(1995)의 PSI를 한국에 표준화한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2008)의 K-PSI 도구를 사용하였다. K-PSI 도구는 부모 보고용 질문지로 만 1세에서부터 12세까지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데, 부모영역과 자녀영역,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영역은 성격과 정신병리 요소와 관련된 우울(DP: Depression), 양육자로서 느끼는 부모의 유능감(CO: Competence),

1) 예; 애착(Attachment) 하위척도의 경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3점인데, 평정결과 33점으로 나온 사례의 경우 애착(Attachment) 하위척도 D index에 체크를 하며, 이 사례에서 5개 하위영역 중 3개 하위영역에서 D index에 체크가 되면 해석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지 부모의 동기를 재는 애착(AT: Attachment), 부모역할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지지를 평가하는 배우자(SP: Spouse), 부모역할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을 재는 고립(IS: Isolation), 양육에 요구되는 현재의 신체적 건강을 재는 건강(HE: Health), 부모의 개인적 자유와 기타 삶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의 영향력을 재는 역할제한(RO: Role Restriction) 등 총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동 영역은 6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재는 적응(AD: Adaptability)척도, 아동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를 측정하는 요구(DE: Demandingness)척도, 아동의 지나친 울음, 위축, 우울과 관련된 기분(MO: Mood)척도, 부모가 활동적인 양육을 해야 하는 등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고갈을 재는 주의산만/과잉행동(DI: Distractibility/Hyperactivity)척도,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부모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갖게 하는지를 재는 보상경험(RE: Reinforces Parent)척도, 아동이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는지 재는 수용(AC: Acceptability)척도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PSI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아동영역의 경우 적응 .77, 수용 .78, 요구 .74, 기분 .73, 주의산만/과잉행동 .63, 보상경험 .73, 총 아동영역 .91로 나타났다. 부모영역의 경우 우울 .83, 애착 .56, 역할제한 .84, 유능감 .83, 고립 .82, 배우자 .80, 건강 .71, 총 부모영역 .9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K-PSI와 더불어 Abidin(1995)이 개발한 PSI 확장형의 120문항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통해 36문항으로 재구성된 PSI 축약형을 정경미와 동료(2008)들이 표준화한 K-PSI-SF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PSI-SF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부모의 고통 .80,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78, 까다로운 아동 .83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er; PRQ-P) 한국판 예비 표준화 연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 질문지의 판권을 보유한 미국 출판사에 본 질문지의 한국판 질문지의 표준화 연구 및 판매 관련 판권을 획득한 후,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아동상담심리 전공 본 연구진이 각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후 번역된 문항을 다시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제 3의 아동심리학자로 하여금 역번역을 하도

록 하였다. 다음으로 역번역 문항과 원문항을 영어만을 사용하는 제 3자가 비교함으로써 번역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 애매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본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 전주, 청주 및 부산 전국 5개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38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 중 20명은 6-10일 후에 다시 PRQ 척도를 재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별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1곳과 영유아임상센터 1곳에 내원한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여 첫째,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한 뒤,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도구의 요인구조의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를 산출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척도를 두 번 실시한 결과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K-PRQ-P와 유사한 영역을 측정하는 K-PSI 도구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K-PRQ-P 각 하위척도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별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로 진단된 임상집단과 정상 집단간 K-PRQ-P 하위척도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통계

우선 본 도구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각 연령, 그리고 성별로 한국판 PRQ 도구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성차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세 유아에 비해 4-5세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계적 좌절감을 덜 경험하

표 3. 영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PRQ의 하위척도 차이검증

	성		<i>t</i>	연령		<i>t</i>
	남아 (n=161) M(SD)	여아 (n=149) M(SD)		2-3세 (n=64) M(SD)	4-5세 (n=246) M(SD)	
애착(Attachment)	20.57(4.84)	20.15(4.99)	.79	20.74(4.40)	20.27(5.09)	.73
훈육(Discipline Practice)	15.77(4.22)	15.90(4.01)	-.30	15.21(4.23)	16.02(4.09)	-1.51
관여(Involvement)	12.72(3.66)	12.37(3.72)	.87	13.08(3.60)	12.51(3.81)	1.17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11.19(3.27)	10.76(3.42)	1.15	10.54(3.14)	11.04(3.53)	-1.12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93(3.95)	9.12(3.53)	-.44	10.18(4.14)	8.73(3.77)	2.86**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확인적 요인분석

우선, 도구의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판 PRQ의 요인구조에 맞추어 총 5개 하위영역, 애착(Attachment), 훈육(Discipline Practice), 관여(Involvement),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을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여 모델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CFI, TLI, NFI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인 RMSEA가 .08 이하인 .07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내적합치도

본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척도별로 신뢰도 계수가 .74-.81로 나타나, PRQ manual에 제시되어 있는 미국판 PRQ의 신뢰도 계수의 범위인 .76-.86(Kamphaus & Reynolds, 2006)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전체 연구대상 235명 중 2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6-10일 간격 뒤에 재실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각 척도별 검사-재검사 간 상관계수는 .75-.90로 나타나, PRQ manual에 제시되어 있는 미국판

표 4. 한국판 PRQ 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NFI	RMSEA
1402.29	591	.76	.73	.66	.07

* $p < .05$, ** $p < .01$

표 5.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문항수	한국판 PRQ-P	미국판 PRQ-P
애착(Attachment)	11	.81	.83
훈육(Discipline Practice)	9	.79	.86
관여(Involvement)	8	.76	.85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7	.74	.77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	.77	.76

주. 2문항은 critical item으로 하위영역별 합산에서 제외됨

표 6. 검사-재검사 신뢰도(상관계수)

	한국판 PRQ-P	미국판 PRQ-P
애착(Attachment)	.80	.78
훈육(Discipline Practice)	.83	.89
관여(Involvement)	.86	.85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75	.75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90	.82

주. 모든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PRQ의 검사-재검사 상관계수의 범위 .75-.89 (Kamphaus & Reynolds, 2006)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당도

내적타당도

도구의 내적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RQ 각 척도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하위척도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하위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12-.64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를

표 7. 각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1	2	3	4	5
1. 애착(Attachment)	1				
2. 훈육(Discipline Practice)	.46***	1			
3. 관여(Involvement)	.64***	.37***	1		
4.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63***	.47***	.58***	1	
5.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12*	.13*	-.25***	-.32***	1

* $p < .05$, *** $p < .001$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과 애착(Attachment) 및 훈육(Discipline Practice)의 상관관계는 -.12와 .13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하면 다른 척도들 간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

도구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1곳과 사설임상센터 1곳에 내원한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와 정상유아의 PRQ 각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사례수 75명(진단명: 불안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및 부모자녀관계문제)에 맞추어 전체 연구대상 정상유아 388명 중 75명을 무선선별하여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관여(Involvement)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상아동과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PRQ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변별타당도가 높음이 증명되었다.

공인타당도

도구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RQ

표 8. 정상집단과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 집단 간 차이검증

	집단		t
	정상집단(n=75) M (SD)	장애 집단(n=75) M (SD)	
애착(Attachment)	20.52(4.73)	19.31(3.93)	2.04*
훈육(Discipline Practice)	15.90(3.88)	13.02(3.59)	5.63***
관여(Involvement)	12.79(3.76)	12.57(13.00)	0.13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11.14(3.34)	9.74(3.11)	2.96**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98(3.96)	12.26(4.40)	-5.34***

* $p < .05$, *** $p < .001$

표 9. K-PSI와의 상관관계 (부모영역 하위척도)

	우울	애착	역할 제안	유능감	고립	배우자	건강	부모 영역
애착(Attachment)	.11*	.23***	.01	.26***	.21***	.17**	.10*	.24***
훈육(Discipline Practice)	.05	.06	.06	.12*	.14**	.07	.01	.09
관여(Involvement)	.19***	.26***	.05	.40***	.30***	.23***	.16**	.34***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33***	.28***	.13**	.49***	.33***	.32***	.28***	.44***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54***	.34***	.42***	.62***	.28***	.40***	.36***	.6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K-PSI와의 상관관계 (아동영역 하위척도)

	적응	요구	수용	기분	주의산만/ 과잉행동	보상 경험	아동 영역
애착(Attachment)	.07	.14**	.19***	.10	.10*	.35***	.20***
훈육(Discipline Practice)	.01	.01	.04	.03	.02	.15**	.01
관여(Involvement)	.16**	.19***	.24***	.16**	.10*	.29***	.25***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21***	.32***	.35***	.21***	.20***	.27***	.35***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44***	.54***	.45***	.49***	.40***	.22***	.61***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K-PSI-SF 하위척도와와의 상관관계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총점
애착(Attachment)	.11*	.31***	.06	.19***
훈육(Discipline Practice)	.05	.10	.05	.03
관여(Involvement)	.22***	.37***	.16**	.31***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31***	.40***	.26***	.40***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19***	.03	.31***	.40***

* $p < .05$, ** $p < .01$, *** $p < .001$

하위척도와 미국판 PRQ 매뉴얼에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인 PSI의 한국판 표준화 도구인 K-PSI와 K-PSI-SF의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N=388)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 표 10,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PRQ 하위척도와 K-PSI(부모영역 범위, $r=.24$ 부터 $r=.60$; 아동영역 범위, $r=.20$ 부터 $r=.61$) 및 K-PSI-SF(범위 $r=.19$ 부터 $r=.40$)의 관련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²⁾. 이는 미국판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PRQ와 PSI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인 PRQ와 PSI(부모영역 범위, $r=.04$ 부터 $r=.42$; 아동영역 범위, $r=.11$ 부터 $r=.44$)의 상관관계 수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와 부모관련 임상 및 연구

- 2) PRQ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 특성을 더 많이 보이며, K-PSI와 K-PSI-SF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위영역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하므로, 변별타당도 분석상 용이한 해석을 위하여 타당도 분석 결과표에는 r 값의 절대값이 제시되었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구분되는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개발된 Kamphaus와 Reynolds(2006)의 PRQ-P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5개 지역 만 2세부터 5세까지 유아 388명을 대상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통한 예비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PRQ의 요인분석 구조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인 RMSEA가 .08 이하인 .07로 나타나 미국판 PRQ와 동일한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NFI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판 PRQ의 요인구조가 미국판 PRQ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 Alpha를 산출한 결과, 각 척도별로 신뢰도 계수가 .74-.81로 나타났으며, 미국판 PRQ manual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의 범위인 .76-.86(Kamphaus

& Reynolds, 2006)과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총체적으로 본 도구의 문항간 동질성이 높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6-10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5-.90으로 나타났으며, 미국판 PRQ manual에서 제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의 범위인 .75-.89(Kamphaus & Reynolds, 2006)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본 도구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도 입증되었다.

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PRQ 각 척도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도구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둘째, 변별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대상과 정서 및 행동장애로 진단된 임상유아 집단의 PRQ 점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여(Involvement)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상아동과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PRQ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변별타당도가 높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정서 및 행동장애로 진단된 유아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상유아 부모에 비해 애착형성도 잘 되지 못하고, 적절한 훈육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도 적게 느끼는 반면, 관계적 좌절감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미국판 PRQ 매뉴얼에서 공인타당도 분석으로 제시되어 있는 도구인 PSI의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K-PSI와 K-PSI-SF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PRQ 하위척도와 K-PSI 및 K-PSI-SF의 관련 하위척도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PRQ의 하위영역과 일치되는 K-PSI와 K-PSI-SF의 일부 하위영역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다소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다(예; K-PRQ 애착척도와 K-PSI 애착척도 상관계수 .23). 이는 미국판 PRQ 매뉴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제시되었는데(상관계수 .20), PRQ 저자인 Kamphaus와 Reynolds(2006)의 설명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PRQ의 애착 척도의 구인은 자녀의 생각, 느낌, 전반적인 기분을 부모가 잘 파악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한 안전감을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나 PSI의 애착척도는 PSI 척도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자녀와의 애착관계 측면에서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유발하는지와 관련된 구인을 측정한다(Kamphaus, & Reynolds, 2006). 따라서 이러한 두 척도 간 애착에 대한 구인의 정의가 구별되고, 그에 따라 측정문항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만 상관계수는 다소 낮게 산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연구 대상은 전국 5개 지역 유아의 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모든 측정을 모가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대부분 중산층, 대졸 이상이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가 보고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PRQ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모자녀관계는 모 뿐 아니라 부와도 이루어지며, 특히 부와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볼 때, 추후 부를 대상으로 한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3세 유아의 경우 전체 사례의 24.6%에 해당하였으므로, 추

후 표준화 연구에서는 더 많은 2-3세 유아 사례표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기존의 신뢰로운 도구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미국판 PRQ 매뉴얼에서 제시한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한 도구인 PSI의 한국판 K-PSI와 K-PSI-SF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부모자녀관계 관련도구와의 상관분석, 특히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부모자녀관계 측정도구와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도구의 변별타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임상군과 정상군의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도구를 통해 추후 정서 및 행동장애를 보이는 유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련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외국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해보는 다문화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도구는 간편하게 측정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지필식 검사도구로서 부모와 임상 및 상담가에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질적분석(Sidebotham & ALSPAC Study team, 2001)이나 Q-sort 방법을 이용한 측정(Mol & Buysse, 2008)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추후 본 도구와 질적 분석 도구를 함께 고려한 부모자녀관계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유아 및 부모관련 교육현장,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는 부모자

녀관계를 측정하는 도구인 한국판 PRQ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추후 본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다양한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진은 본 도구의 개발자인 Kamphaus와 함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문화 비교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 본 도구의 한국 표준화 과정을 통해 본 도구에서 제시되는 한국판 부모자녀관계 임상기준점인 T점수가 제공된다면 임상현장에서 치료나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유미 (2001).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연계: 인지표상 모델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22(1), 83-96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문혁준 (2008). 부모-자녀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 아동학회지, 29(2), 15-31.
- 박영신, 김이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회지, 38(2), 109-

- 146.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41-65.
- 신건호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4), 97-113.
- 신의진, 이경숙, 이재명 역 (2003). 진단분류: 0-3. 영유아기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 진단 분류. 하나의학사.
-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 (2003). 한국 애착장애 아동의 발달 및 임상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55-174.
-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분석 - 부모의 경험과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57-176.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4). 부모-자녀관계 문제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이야기표상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95-96.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689-707.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성 - 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홍성훈, 도현심 (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insworth, M. D. S., Blear, M. C., & Water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tognoli-Toland, P. L. (2001). Parent-child relationship, family structure, and loneliness among adolescents. *Adolescent & Family Health*, 2, 20-36.
- Brennan, P. A., Broque, R. L., & Hammen, C. (2003). Maternal depress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resilient outcomes in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ce Psychiatry*, 42(12), 1469-1477.
- Conner, V. Y. (2001). Parental involvement: Quantifying parent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a child's readiness to lear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 (8-A), 3046. (UMI NO. 9984610).

- Culp, R. E., Schadle, S., Robinson, L., & Culp, A. M. (2000).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erceived self-confidence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27-38.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3rd ed.). Devoep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y.
- Harach, L. D., & Kuczynski, L. J. (2005).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idirectional contrib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327-343.
- Harris, L. R.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ixth-graders' social competence at scho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2*, (7-B), 3419. (UMI No. 3021389).
- Kamphaus, R. W., & Reynolds, C. R. (2006). PRQ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manual. Pearson Assessment.
- Kendall, P. C., MacDonal, J. P., & Treadwell, K. R. (1995). The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in youth. In A. Eisen, C. Kearney, & C. Schaefer(Eds.), *Clinical handbook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youth*(pp.573-598).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 Lifford, K. J., Harold, G. T., & Thapar, A.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HD symptom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285-296.
- Magill-Evans, J., & Harrison, M. J.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al outcomes at 4 years. *Children's Health Care, 30*, 135-150.
- Mantzicopoulos, P. (2003). Flunking kindergarten after Head Start: An inquiry into the contribution of contextual and individual variabl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268-278.
- Mol, J. D. & Buysse, A. (2008). Understandings of children's influenc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A Q-methodological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5*(2), 359-379.
- Rosenzweig, C. J. (2000). A meta-analysis of parenting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parents in promot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 (4-A), 1636.
- Schmidt, F., Cuttress, L. J., Lang, J., Lewandowski, M. J., & Rawana, J. S. (2007). Assess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parenting capacity evaluations: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research. *Family Court Review, 45*(2), 247-259.
- Sidebotham, P. & the ALSPAC Study team (2001). Culture, stress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qualitative study of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7*(6), 469-485.
- Zhang, Q. (2007).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nflict styles in Chin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Communication Quarterly, 55*(1), 113-128.
- Zeanah, C. H., Benoit, D. & Barton, M. (1986). *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Brown University.
- ZERO TO THREE. (1994). DC: 0-3, *Diagnostic Classification of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al Disorders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Washington DC: ZERO TO THREE Press.

ZERO TO THREE. (2005). *Revised DC: 0-3R, Diagnostic Classification of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al Disorders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Washington DC: ZERO TO THREE Press.

1차원고접수 : 2013. 7. 24.

심사통과접수 : 2013. 9. 11.

최종원고접수 : 2013. 9. 22.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K-PRQ-P)

Kyung-Sook Lee¹⁾

Jin-Ah Park¹⁾

Mee Li Lee²⁾

Yoo Lim Shin³⁾

¹⁾Hanshin University

²⁾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³⁾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K-PRQ-P). K-PRQ-P was administered to the parents of 388 preschoolers from 2 to 5 years of age. The reliability was tested through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N=20). For validity test, scale intercorrelation, discriminant validity through administration to the parents of clinical preschoolers with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N=75), and construct validity through K-PSI and K-PSI-SF were examined.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imilar factor structures exist in both PRQ-P and K-PRQ-P. Overall, results showed high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74 to .81), test-retest reliability(.75 to .90), construct(K-PSI .20-.61; K-PSI-SF .19-.40) and discriminant validity, suggesting vali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PRQ-P. Implications of using the K-PRQ-P both as a clinical tool and a research instrument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child Relationship, preschooler, reliability, validity, K-PRQ-P